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2014년도

100대 인권지표 평가결과 보고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I

인권지표 평가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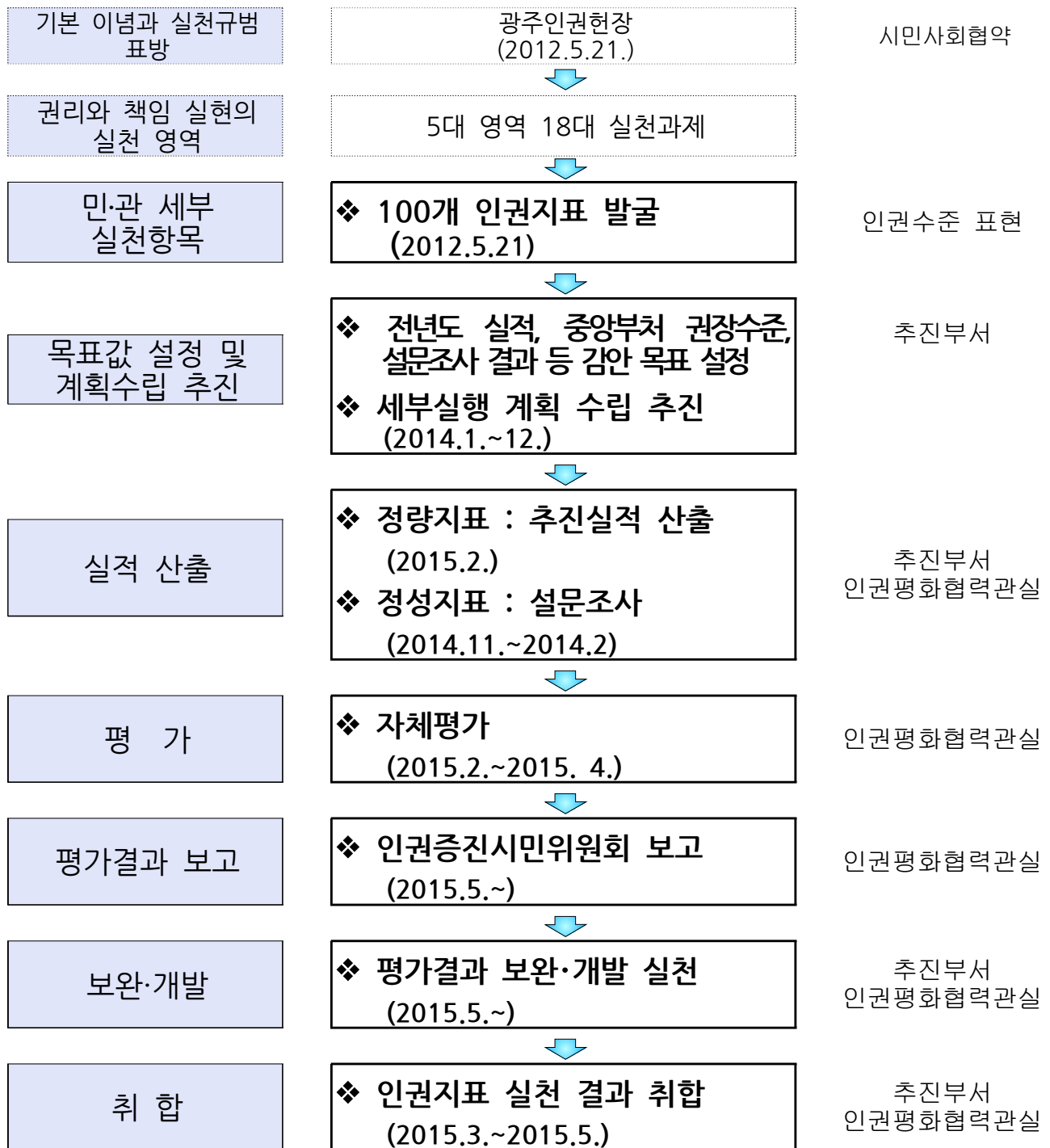
①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평가기간 : 2014. 12월 ~ 2015. 3월
- 평가대상 : 2014년도 인권지표 112개(하위인권지표 포함) 중
98개 지표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정량평가(96개 지표) : 2014.12월말 기준 연간 실적이나 연간 통계 자료 결과
 - 정성평가(16개 지표) : 외부기관 용역 및 자체 설문조사 결과

② 추진 경과

- 100대 광주지표 발표 : '12.5.21.
-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작성 : '12.9.~'13.1.
- 인권지표 실천결과 평가 및 설문조사 취합 : '14.1.~3
- 100대 광주지표 평가보고 : '14.4.25.
- 2014 인권지표 보완 및 실천 : '14.4
- 인권지표통계연보 발간 검토 : '14.5
- 2014 인권지표 담당자 워크숍(2회) : '14. 6./'14.12.
- 2014 정성지표 설문조사 : '14.11~'15. 2
- 2014 지표 성과 실적 취합 : '14.12~'15. 2
- 2015 100대 인권지표 개선 추진 : '14. 9.~'15. 2

3 추진 체계



4 평가방법

- 정량지표(96개중 83개) : 실적 값을 대입하여 산출
 - ◆ 매년 12월 말 기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개선율 산출
 - ◆ 시청 등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리자들이 생산한 자료나 연간 단위의 통계 이용
 - ◆ 실적 자체평가(추진부서) 및 자료 확인(인권평화협력관실)
 - ◁ 산출된 지표 : 83개
 - ◁ 산출 안 된 지표 : 13개 (통계 미발표, 발표시기 미도래 등)
 - 단체장의민주적리더십, 노동조합조직률, 산업재해발생수, 체불임금해소율, 자살발생수, 5대질환사망자수, 최저수준미달주택률,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및 구제, 대졸남성대비 대졸여성노동조건격차,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장벽없는 도시환경조성, 치안안전도 범죄건수, 범죄 검거율, 교통안전도
- 정성지표(16개중 15개) : 시민들의 인권 관련 만족도나 주관적 의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
 - ◁ 산출된 지표 : 15개
 - ◁ 산출 안 된 지표: 1개(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
- 개선율(%) 산출
 - ◆ 지표별 개선율(%)
(2014년도 값 - 2013년도 값)/2013년도 값 ×100
 - ◆ 영역별 개선율(%)
 - ◁ 산출방법 : (영역별 개선율 합)/지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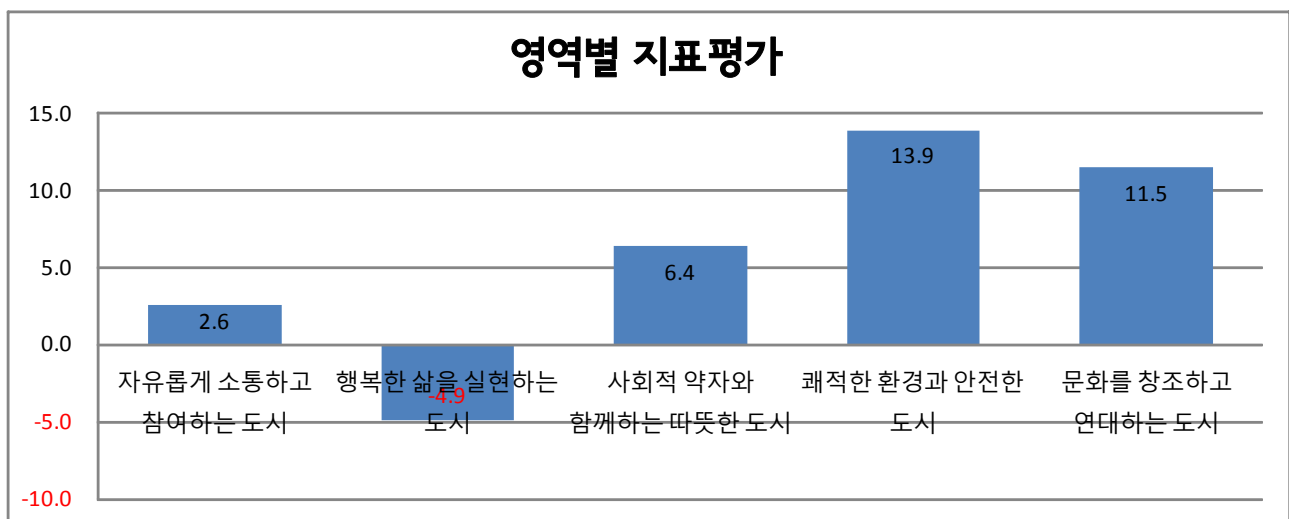
5 평가위원 구성·운영

- 시 기 : 2015.4월
- 구 성 : 인권평화협력관,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인권지표 개발자
- 역 할 : 인권지표 실적산출의 적정성 검토 및 지표 값의 의미 평가

Ⅱ 인권지표 평가결과

① 종합 분석 / 평가

- 2014년 인권헌장 5대 영역 18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인 인권지표 100개를 대상으로, 지표별 2014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그 결과를 「2013년 대비 개선율」로 환산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
- 광주 인권은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평균 6.0%의 개선율을 보여, 인권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남.
- 5대 영역별 개선율은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이 13.9%로 2013년에 이어 가장 높게 개선되었으며,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이 11.5%,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이 6.4%,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이 2.6%,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이 2.6% 개선율을 보여 -4.8% 개선율을 보인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 인권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평가 대상 지표 98개 가운데 72개 지표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26개 지표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음.
 - 정량지표(83) : 70개 개선, 13개 감소
 - 정성지표(15) : 3개 개선, 12개 감소
-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의 개선율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가장 높은 13.9% 개선되었음.
 - 이는 2014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 관리 강화 등으로 부적합 제품 검출건수가 감소하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65%)이 크게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침.
-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은 작년 6.3% 개선율에서 올해는 11.5%의 개선율로 크게 향상되었음.
 - 이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의 단일화 및 작년대비 국비 증가 등으로 인해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102%)이 크게 개선된 것이 제5장 영역 평균 개선율에 영향을 줌.
- 반면에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은 2013년에 전년대비 4.9% 감소되었음.
 - 이는 법정 감염병 감염자수(-86.9%),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24.6%), 재개발재건축불량주택률(-32%)의 지표값이 크게 작용한 것임.
-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영역은 전년에 비해 6.4% 개선률을 보였지만, 기초생활보장율(-5.6%), 결식아동수비율(-2.5%), 아동보육시설 설치율(-0.9%) 등 사회적 약자 주요

지표 개선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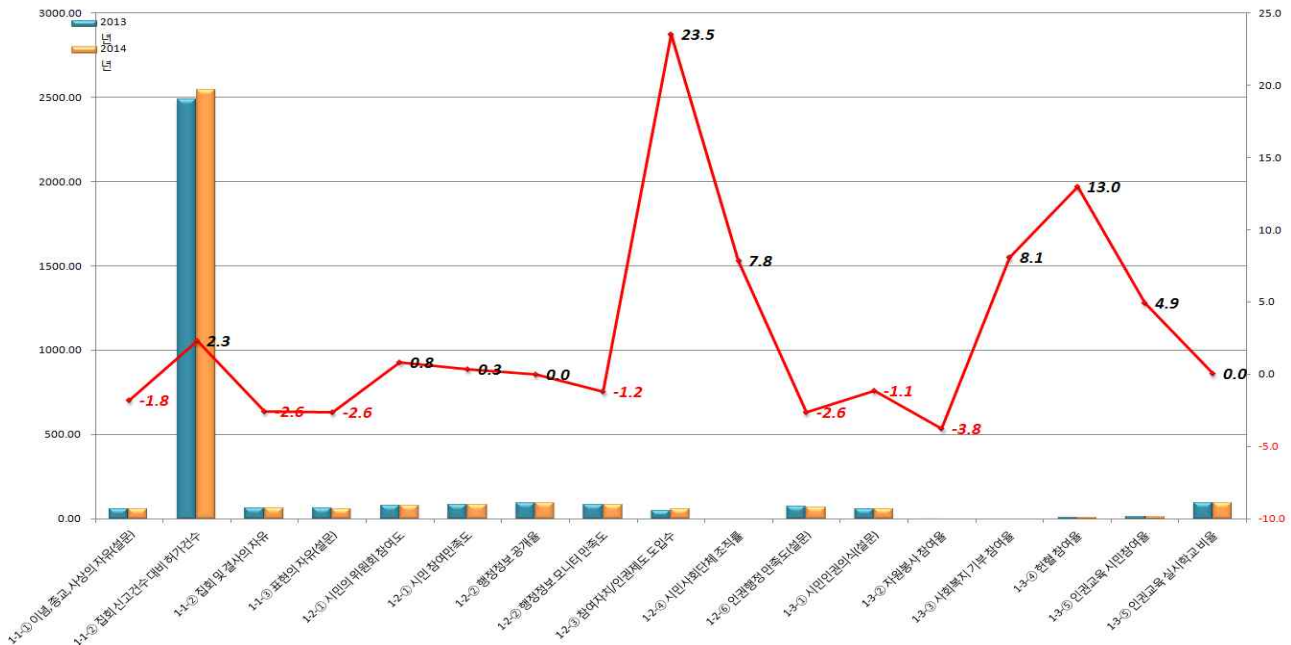
○ 설문조사로 시행되는 정성지표의 인권지수 결과는, 15개 중 12개 지표가 2013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함.

- 이는 사회적 양극화, 실업, 불안정한 고용,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삶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조건은 종합적인 삶의 질을 의미하는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국가적 차원의 인권상황이 지역차원의 인권상황 인식에 영향)
- 따라서 이 결과만을 근거로 광주의 지역적 인권상황(인권의식, 인권인식, 인권경험, 인권평가)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평가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존재함.
- 특히 광주시의 각종 인권제도(인권조례, 광주인권헌장, 인권지표, 인권옴브즈맨, 인권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전년도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인권의식의 부족’은 42.3%(2013)에서 34.4%(2014)로 감소했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비’는 20.2%(2013)에서 15.7%(2014)으로 감소했으며, ‘광주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부족’은 24.8%(2013)에서 17.9%(2014)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남.
- 이와 같은 항목은 지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차원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2 영역별 분석 / 평가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

* 17개 지표
* 개선을 2.6%



○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영역은 총 18개 지표(정량 지표 12개, 정성지표 6개) 중 17개 지표를 측정/평가한 결과 평균 2.6% 개선을 보임.

○ 이념, 종교사상의 자유는 설문을 통해서 측정되었으며, 일반시민 (1000명)의 인권지수(인권의식, 인권인식, 인권경험, 인권평가)는 62.31(100점만점)으로 2013년 비해 1.14점 하락하였음.

- 의식지수 : 0.27 하락, 인식 지수 : 1.31 하락, 경험지수 : 1.76 하락,
평가지수 : 1.30 하락

○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집회신고 건수 대비 허가건수는 작년대비 57건이 늘어나 전년대비 2.3% 개선되었으며, 설문결과는 68.36점으로 2013년 대비 2.6% 하락하였음.

- 표현의 자유는 설문을 통해서 측정되었으며, 일반시민의 인권지수(4대항목 종합 산출)는 65.51점(100점 만점)으로 2013년대비 1.77점 하락하여, -2.6%개선됨.

- 인식지수: 1.49상승, 인식지수 : 2.27하락, 경험지수 : 3.81하락,
평가지수: 2.34하락

- 시민의 행정참여도는 위원회시민참여도와 시민참여만족도(설문) 등 두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음.

위원회시민참여도는 위원회에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1.3% 개선을 향상, 시민참여 만족도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대비 개선을 0.3% 향상되었음.

- 행정정보 공개율은 정보공개율과 모니터만족도(설문) 2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음.

행정정보공개율은 2014년 691건 중 673건을 공개하여 전년과 동일한 97.4%의 정보공개율을 보였음.

모니터만족도는 설문은 통해서 측정되었으며, 일반시민(1000명)의 인권지수(인권경험, 인권평가항목 종합)는 75.96점(100점 만점)으로 2013년 대비 1.86하락하여, 전년대비 -2.4% 개선됨.

- 의식지수 : 4.07 하락, 인권인식 : 0.49 하락, 경험지수 : 1.85하락,
평가지수 : 2.15 하락

- 참여자치 및 인권관련 제도 도입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해소,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산단근로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다문화 가족 참여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을 추진, 2014 BSC 성과평가 공통 지표 「인권행정 실천도」 파악 45건, 토론회, 공청회, 시민아고라, 주민참

여예산 위원회 등 18건, 총 63건으로 전년대비 12건 상승하여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음.

- **시민단체 조직률**은 인구 1만명당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로 전년대비 35단체 증가하여 3.16단체 조직률을 보여 7.8% 개선율을 보였음.
-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은 시민과의 만남의 날 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부서 지표로서 산출이 불가능하였음.
- **인권행정만족도(설문)**에 대한 일반시민(1000명)의 인권지수(인권경험, 인권평가 항목 종합산출)는 74.54점(100점 만점)으로 2013년 대비 2.03점 하락하여, 전년대비 -2.6%개선되었음.
 - 의식지수 : 2.18하락, 인식지수 : 0.34하락, 경험지수 : 2.37하락, 평가지수 : 1.74상승
- **자원봉사참여율**은 2013년 참여율이 전년대비 크게 향상되어 2014년은 다소 감소(-4%)되었으나, 2015 하계U대회 등 범시민 자원봉사 참여 등을 위한 봉사활동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대비 1위 달성 성과를 유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 기부참여율**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돕기, 고려인마을 사회 정착지원사업, 빚고을사랑기금, 나눔 캠페인 등으로 1.65%참여율로 전년대비 0.04%증가하였음.
- **헌혈 참여율**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7.03% → 8.2% → 8.3%)하여 전년대비 13.3%증가하였음.
- **인권교육참여율**은 인권교육 제도화 3년째 맞이하여 ‘찾아가는 인권 교육’이 도입되어 현장 인권교육이 대폭 확대되었음.

인권교육 참여율은 시민참여율과 교육실시학교비율 등 두 개의 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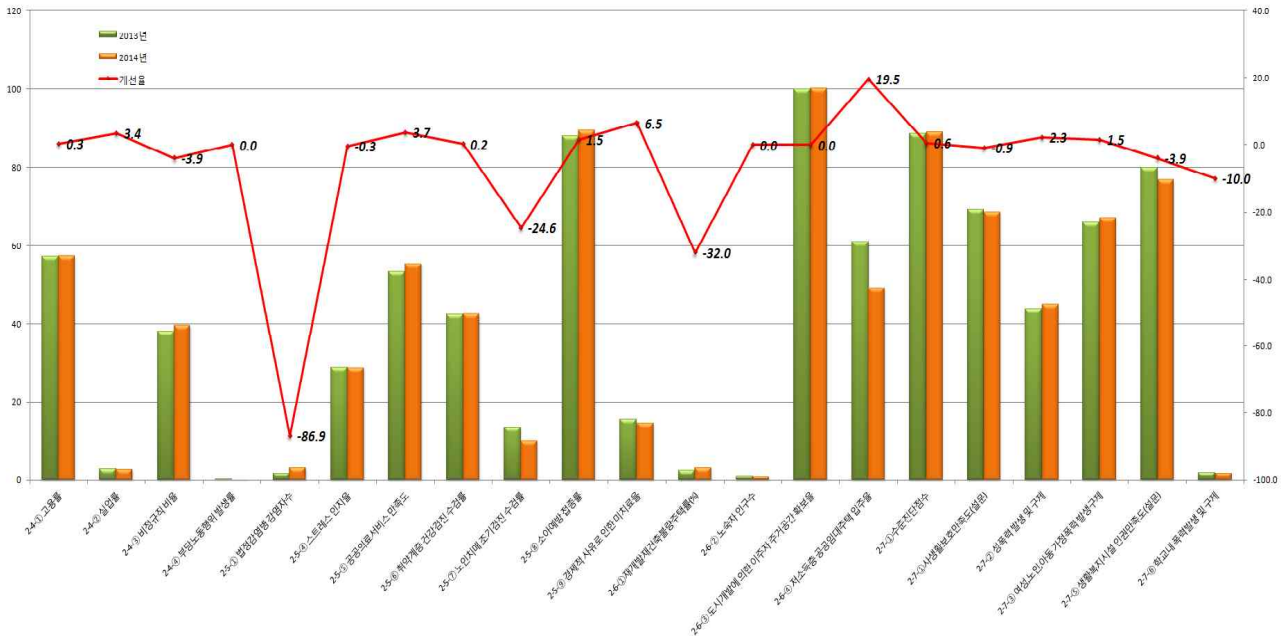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시민참여율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9% 개선되었음

인권교육 실시학교비율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초중고 312개교 중 303개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97.12% 실적을 보여, 전년 97.08%보다 증가하였음.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

* 21개 지표

* 개선을 -4.9%



-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은 총 28개 지표(정량평가 24개, 정성평가 4개) 중 21개 지표를 측정/평가한 결과 평균5.9% 개선을 보임.
- 28개 지표 중 공식적인 발표시기가 하반기 또는 격년제로 산출되는 등 실태조사가 어려운 지표를 제외하고 개선을 산출하였음.
-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포함되어있는 지표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5대 영역 중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개선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고용률**은 전국 최초 일자리영향평가제와 목표관리제 시행, 전국 최고 수준의 일자리창출기업 행·재정 인센티브,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0.3% 개선되었음.
- **실업률**은 실업자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4%개선되었음.

- 비정규직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중 최초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여 3.9% 개선되었음.
- 부당노동행위발생률은 전년대비 동일한 측정결과를 보였으며,
- 노동조합 조직률, 산업재해발생수, 체불임금 해소율은 발표시기 미도래로 측정이 불가함.
- 법정감염병 감염자수 개선율이 크게 감소(-86.9)한 것은 감염병 발생 신고율이 향상된 원인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의 면역력 저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활동이 적극 요구됨.
- 자살 발생수, 5대질환 사망자수 미 발표로 개선율이 미 측정됨.
-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대비 감소(-0.3)를 보였으며,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다수 발생으로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년마다 실시되는 사회조사결과를 활용한 수치로 2012년 대비 3.7%개선되었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은 검진대상자 중 수검자 수로 측정되었으며, 전년대비 0.2% 개선됨. 이는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질병 조기발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율」은 2012년 대비 2013년 14.6% 감소에 이어 2013년 대비 24.6% 감소하였음.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율의 감소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신규 검진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소아 예방접종률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확대 등으로 소아접종 비용 부담경감으로 인해 접종률이 향상, 전년대비 1.5% 개선되었음.
-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치료율은 저소득 아동주치의제 사업 등 지속 추진을 통해 6.5% 개선되었음.
- 주거환경 최저수준 미달 가구수는 최저수준미달률과 재개발재건축 불량주택률 두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미달률은 하반기 발표로 개선을 측정이 불가, 재개발 건축 불량주택률은 개선되었으나, 정비 구역 추가지정 및 주택수의 증가로 인해, 기준년도 수치, 목표 및 개선을 변경이 요구됨.
- 노숙자 인구수는 인구 만명당 노숙자 비율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이는 노숙인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하여 자립 및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숙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공간 확보율은 사전 주거대책 및 이주 대책 수립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 달성되었음.
-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입주대기자 수가 전년 6099명에서 4909명으로 감소하여 19.5%개선되었음.
- 시민사생활보호는 수준진단점수와 사생활보고만족도(설문) 두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수준진단점수는 안전행정 진단기준 평가항목으로 측정, 0.6% 개선되었으며, 사생활 보고에 대한 일반시민(1000명)에 대한 인권지수

(4개 항목 종합 산출)는 68.61점(100점만점)으로 작년대비 0.61점 하락하였음.

- 의식지수 : 1.39감소, 인식지수:1.48감소, 경험지수: 3.28증가,
평가지수 : 3.07감소

- 성폭력 발생구제와 여성, 노인, 아동 등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는 피해자 상담건수 중 지원건수로 측정되었으며, 전년대비 지원율이 상승하여 각각 2.3%, 1.5% 개선되었음
-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및 구제는 전년 통계조사 미이행으로 개선을 측정은 불가하였으나, 장애인 시설 인권교육담당자 모두가 인권교육에 참여하였음.

인권담당자의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한 인권실태 공유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인권만족도(설문) 인권지수는 복지시설이용인(복지시설 이용인, 장애인 보호자)의 평가를 반영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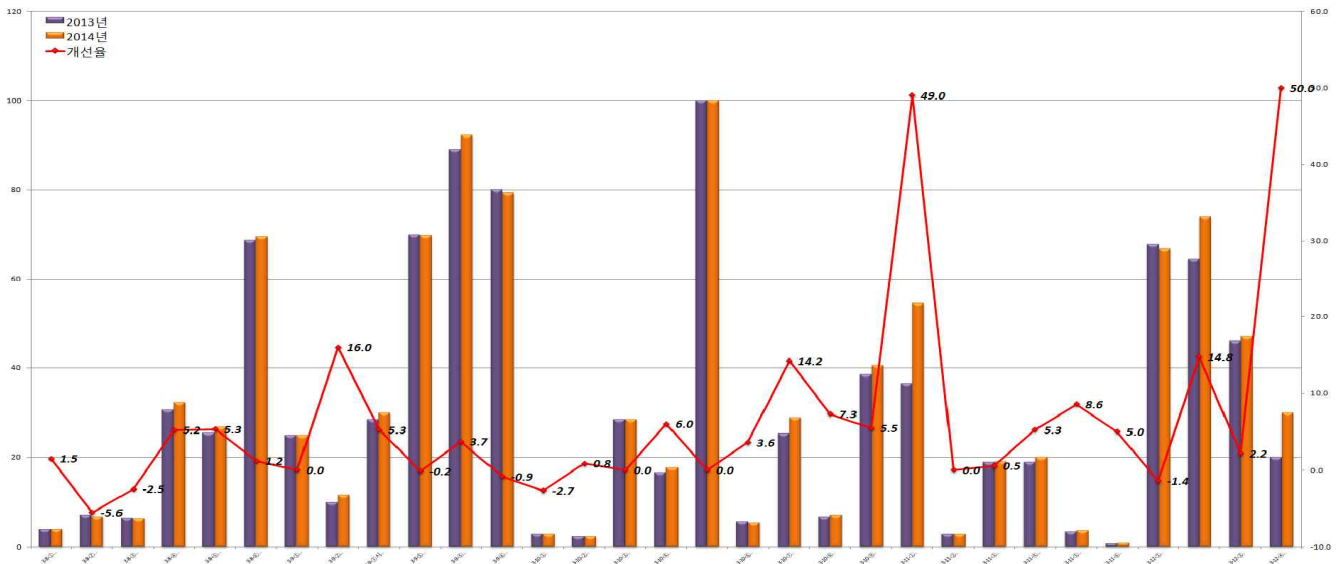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이용인의 인권지수(인권경험, 인권평가 항목 종합산출)는 76.74점(100점만점)으로 전년대비 3.12하락하였음.

- 의식지수 : 0.04감소, 인식지수 : 0.45감소, 경험지수 : 3.06감소
평가지수 : 3.18감소

- 학교 내 폭력발생 및 구제는 전체 학생수에서 자치하는 피해학생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전년대비 피해학생수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0%의 개선되었음.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

* 31개 지표
* 개선율 6.4%



○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은 총 32개 지표 (정량평가 29개, 정성평가 3개)중 31개 지표를 측정/평가한 결과 평균 6.4% 개선율을 보임.

○ **빈곤율**은 전체인구수에서 자치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로 전년 대비 1.5% 개선되었음.

○ **기초생활보장률**은 전체수급자 중 신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전년대비 5.6% 감소되었음.

이는 수급자 관리에 있어 전상망의 구축으로 수급자의 탈락률이 높아져 신규수급자 발굴률이 감소한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음.

○ **결식아동수 비율**은 18세 미만 전체 아동수에서 차지하는 급식지원 아동수 비율로 전년대비 2.5% 감소함.

-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인구의 고령화,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배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복지 예산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5.2% 개선됨.
- 국민연금 납입률은 다양한 방법의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 탈퇴신고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상승(1.2%)하였음.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선출직 여성정치인의 비율은 1.2%,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6.0%, 시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은 5.3% 각각 전년대비 개선되었음.
- 대졸 남성대비 대졸여성 노동조건 격차는 성인지 통계 조사에 시기에 따라 산출이 불가하였음
- 출산육아휴직 이용 용이도는 휴직이용 용이도(설문)와 대체인력 지원을 두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도에 대한 직장생활 중 출산경험의 인권지수(4개 항목 종합산출)는 69.89점(100점만점)으로 전년대비 0.91 하락하였음.
 - 의식지수 : 0.05상승, 인식지수:0.24감소, 경험지수:1.72감소
 - 평가지수 : 3.04감소
- 대체인력지원율은 대체인력뱅크를 구성·운영하여 휴직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체인력 지원율이 해마다 증가 전년대비 3.7%개선되었음.
- 아동보육시설 설치율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나, 의무설치 사업장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이행률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0.9% 감소함.

-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는 종사자 1인당 차지하는 아동수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2.7% 감소함.
-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이용자수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2.7%감소함.
- 특수보육시설 지정수는 전년과 동일한 285개소로 전년대비 동일한 비율을 보임.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은 가족관계, 일탈행위, 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율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데, 위기청소년사회안정망(CYS-Net) 구축을 통하여 병원, 경찰서 등과 연계, 비행청소년 선도 지원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비행문제를 예방하여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함.
- 홀로 소년소녀아동지원율은 전년과 동일, 인터넷 중독률은 날로 급증하는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 사용량에 대비한 올바른 이용 및 활용법 교육 등으로 3.6% 개선되었음.
- 노인취업률은 노노(老老)케어 사업을 연중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년대비 14.2% 개선되었으며,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실시로 전년대비 7.3% 개선되었음.
-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은 독거노인 중 지원수혜자 수의 비율로 독거노인현황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5.5% 상승되었음.
- 장애인 채용률은 장애인 근로·보호 작업장 증설 확대와 장애인 채용 사회적 기업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행정도우미, 안마사 파견 등 복지일자리 창출 등에 힘입어 49% 대폭 상승하였음.

- 기타 장애인 관련지표인 **특수학교대상자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년과 동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역시 전년대비 0.5%개선되었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수, 장애인 평생학습 접근도, 장애인 여성 출산율 모두 전년대비 개선율이 상승하였음.

-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설문)** 인권지수(일반시민의 인권의식, 인권인식, 인권평가 지수와 외국인의 인권경험지수를 종합하여 인권지수산출)는 66.88점(100점만점)으로 전년대비 0.97점 하락함.
 - 의식지수 : 0.56감소, 인식지수:0.21감소, 경험지수 :1.62감소
 - 평가지수 : 1.48감소

- **외국인 차별경험(설문)**은 정량지표를 통해서 산출된 지표 중 전년대비 유일하게 개선율이 증가한 지표임.

외국인의 차별 경험도에 대한 인권지수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평가를 반영하였으며, 외국인 차별경험에 대한 외국인의 인권지수(인권경험 산출항목)는 74.00(100점만점)으로 전년대비 9.52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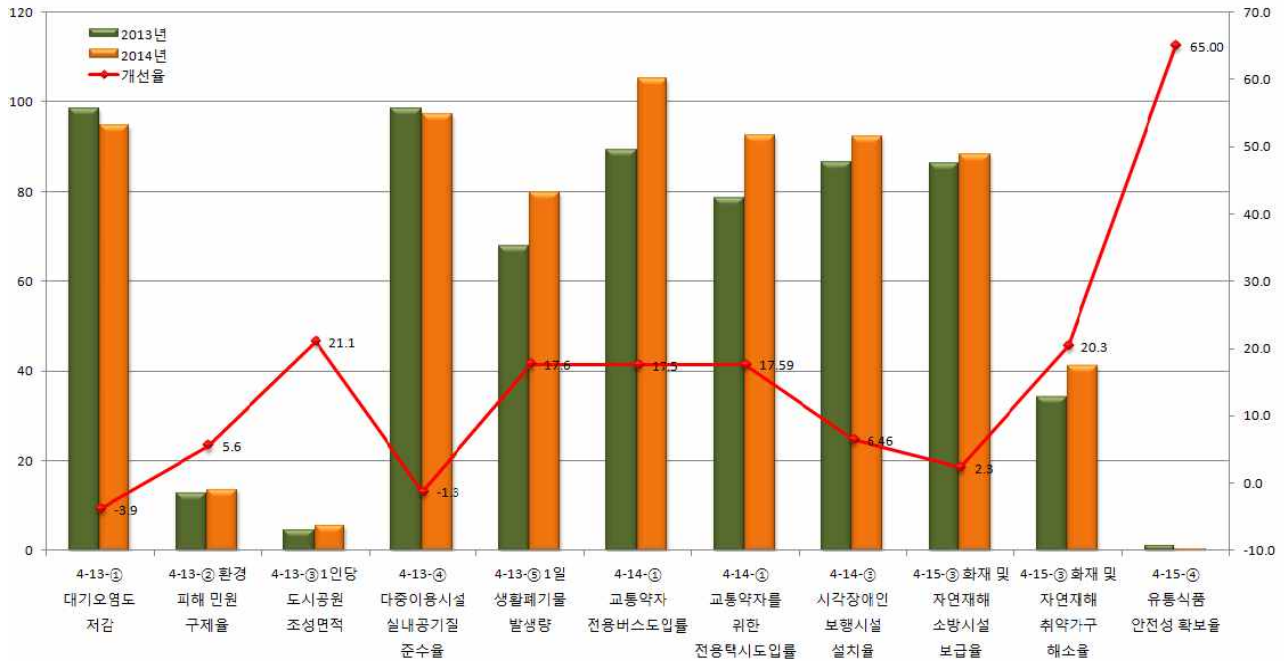
- 의식지수 : 2.79감소, 인식지수 :5.03감소, 경험지수 : 9.52상승
- 평가지수 : 1.48감소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 증가로 전년대비 2.2% 증가함.

- **외국인 언어소통권**은 전체 공공기관수 중 통역서비스 지원기관의 수로 전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되어 50% 크게 상승함.

④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

* 11개 지표
* 개선율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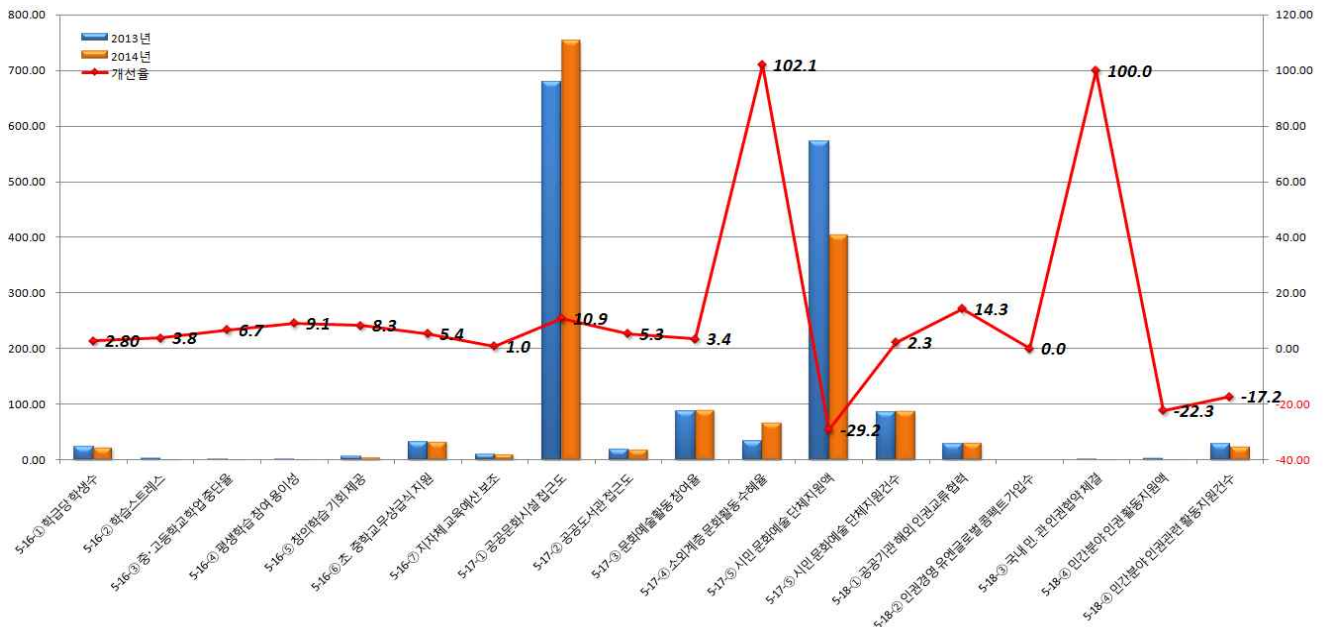
-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은 총 16개 지표(정량평가 12개, 정성평가 4개)를 중 11개 지표를 측정/평가한 결과 평균 13.9% 개선됨.
- 평가 지표중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인 영역임.
- **대기오염도 저감**은 공기중에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환경기준 이내 일률로 측정하였으며, 전년대비 일수가 감소, 개선율도 감소(-3.9)함.
- **환경피해민원발생 및 구제**는 환경신문고 접수처리 건수로 측정되었으며, 시민 자율 환경감시기능 활성화와 환경민원 신속 처리로 신고 및 처리 건수가 증가, 전년대비 5.6%개선되었음.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매년 조성 전체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매년 1인당 면적이 증가하여, 개선율이 전년대비 21.1%크게 증가하였음.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실내 공기질 준수율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보육시설 등에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여 전년대비 1.7% 감소되었음
- 1일 생활폐기물발생량 감량은 1일 1인 생활폐기물 발생률로 측정되었으며,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2%개선되었음.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도입률은 저상버스도입율과 전용택시 도입률로 측정되었으며, 버스는 해당연도 상하반기에 각각 10대씩 도입, 장애인 전용택시는 80대로 전년대비 17.6%, 17.5%의 증가하였음
-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등으로 6.5% 개선되었음.
-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은 소방시설보급과 자연재해취약가구 해소율로 두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소방시설보급률은 원거리 자연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및 수동식 소화기 보급으로 보급률이 향상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에 정비사업완료 가구수가 증가하여, 두 하위지표 모두 2.3%, 20.3% 향상되었음.
- 이 영역의 마지막 지표인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강화로 부적합 제품 검출검수가 크게 감소하여, 65% 향상되었음.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

* 18개 지표

* 개선율 11.5%



○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은 총 18개 지표(정량평가 17개, 정성평가 1개)를 중 18개 지표를 측정/평가한 결과 평균 12.9%의 개선율을 보임.

○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설립 및 교실 증축 등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4명에서 23.3명으로 감소하여 2.8%개선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측정이 불가하였음.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6.7%개선되었음.

○ **과중한 학습스트레스**는 교육청 설문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측정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여, 전년대비 3.8% 증가함.

○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은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 기관수로 측정되었으며, 저년대비 기관수 증가로 9.1% 개선되었음.

- **창의학습 기회제공**은 학교당 평균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수로 측정되었으며,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모델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수가 증가, 전년대비 8.3% 개선되었음.
-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은 무상급식 1인당 지원액으로 측정되었으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 및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지원액이 증가되어 5.4%개선되었음.
- **공공문화시설 접근도**는 전년대비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특히 작은도서관 66개소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0.9% 개선되었음.
- **공공도서관 접근도**는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수로 측정되었으며, 전년 19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하여 5.3%개선율을 보였음.
- **문화예술활동 만족도**는 임방울국악제, 정유성축제 등 4대 행사에 참석한 400~8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측정되었으며, 전년대비 만족도가 증가하여 3.4%개선되었음.
-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을 문화, 여행, 스포츠 3개분야의 이용권을 단일화,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소외계층의 67.5%가 문화활동을 수혜하게 되어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은 102.1% 크게 향상되었음.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단체 지원액**과 **지원건수** 두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음.
단체지원액은 예산반영이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지원대상 단체의 수는 증가하여, 단체지원액은 감소하고, 지원건수는 증가하였음.
-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국내외 공공기관은 물론 연구소, NGO 등과 **협력건수** 역시 2014년 32건으로 기준년 대비 12.3% 향상되었음.

Ⅲ '14년 인권지표 평가 결과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개선율을 산출한 결과 종합평균 6.0%로, 지표값으로 나타나는 광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수치로 나타나는 양(+)의 개선율이 우리시 전체 인권개선의 필수적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야함. 11개의 정성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인 시민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이러한 점을 나타내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음.
- 인권지표 값의 단순한 수적인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각 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미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인권지표 평가의 현실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의 우선적 정책적 관심은 지표값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표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
 - ▶ 사상, 양심, 종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전체적인 인권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시도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보장하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시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 다양한 인권제도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인권행정만족도에 대한 지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각종 인권제도와 인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

책에 대한 개발과 실행이 요구됨.

□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

- ▶ 비정규직 비율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해소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증가함. 민간영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개선노력이 민간영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 2014년 법정 감염병 발생 증가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한 노인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 생활복지시설 인권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재 광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시설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인권옴브즈맨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 ▶ 신규수급자 발굴률로 산출된 기초생활보장률의 감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침개정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정부정책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는 긍정평가 할 수 있지만 인권적 관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법령 및 지침 허용 범위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 활용과 광주만의 독자적 권리구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

- ▶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중국·러시아 동포, 유학생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를 넓힐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적극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

- ▶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하여 환경정책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의 보급 정책과 연계해서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전용택시의 광주시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더 많은 이동수단의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버스 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고민하여야 함.

□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

- 교육, 문화예술 권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문화시설의 접근도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

IV 향후 계획

- 인권증진운영소위원회 검토
- 2015 인권지표 운영계획 취합에 따른 지표 검토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보고